



2025 년 11 월 1 일 토요일

날씨 비가 많아요.

환경인기형을 쓰는 첫날인 오늘은, '환경기쁨이'로써 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았다. 나는 수많은 활동 중, 환경에도 할 수 있거나 학생의 특성을 살려서 학교 내에서 할 수 있을 활동에 대해 찾아보았다.

아직 어린 학생이라 생각했던 내지만,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았다. 가끔 편지 눈에 들어온 것은 분사기였다. 나는 3-1 분사기 담당으로서 매주 목요일 아침 분사기를 하고 있었던 때문에 우리 학교의 분사기 문제를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우리반 학생들은 제트병에 붙은 비닐을 떼어내고 버렸으며, 비닐과 종이 칸이 바뀐 쓰레기 중에는 재활용할 수 없게 만들어진 상태인 일반쓰레기가 매우 많았다. 이는 유해물질이나 나쁜 화학물질이 공중에 섞여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이것은 각반의 분사기 담당이 아니기엔 잘 모르는 문제였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알리기로 했다. 나의 동아리인 '환경부가 운영하는'은선외담이 나의 사연과 분사기 방법을 함께 기사화하여 문제를 공중하이하기 시작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기기를 적극 사용하는 학생들을 기념하여 은선외담으로 업로드하였다.

포스터에는 학생들이 주로 잘못 버리는 쓰레기를 삽입하였다. 소문은가 때 분사기를 해야 하는지 학생들의 의견을 함께 들었다. 다음날에 내가 포스터를 제작하기엔 부담했던 포스터를 함께 그려넣었다.

내가 만든 포스터와 글을 보고 눈가미 생각이, 행동이 변할수있도록가 생각하니 전과 환경기쁨이가 된 것아냥 뿌듯함이 느껴왔다. 많이 앞으로 계속 같이 활동할 수 있을 것만 같다.






장려상

서하나 고등학교 1학년


2025 년 7월 2 일 수요일

날씨 비가 그쳤다!

~~~~~



# 우리학교 올바른 분리배출 수칙



~~~~~

서하나 제작.

~~~~~  
올바른 곳에 버기기!

올바른  
분리배출로  
환경보존을  
만들어요!

알쓸신분

- 음식물 + 비닐 → 일반!
- 페트병 → 재활용 out!
- 포스트잇, 테이프 → 일반!

~~~~~  
분리배출, 더 어렵게까지 해야 돼!


환경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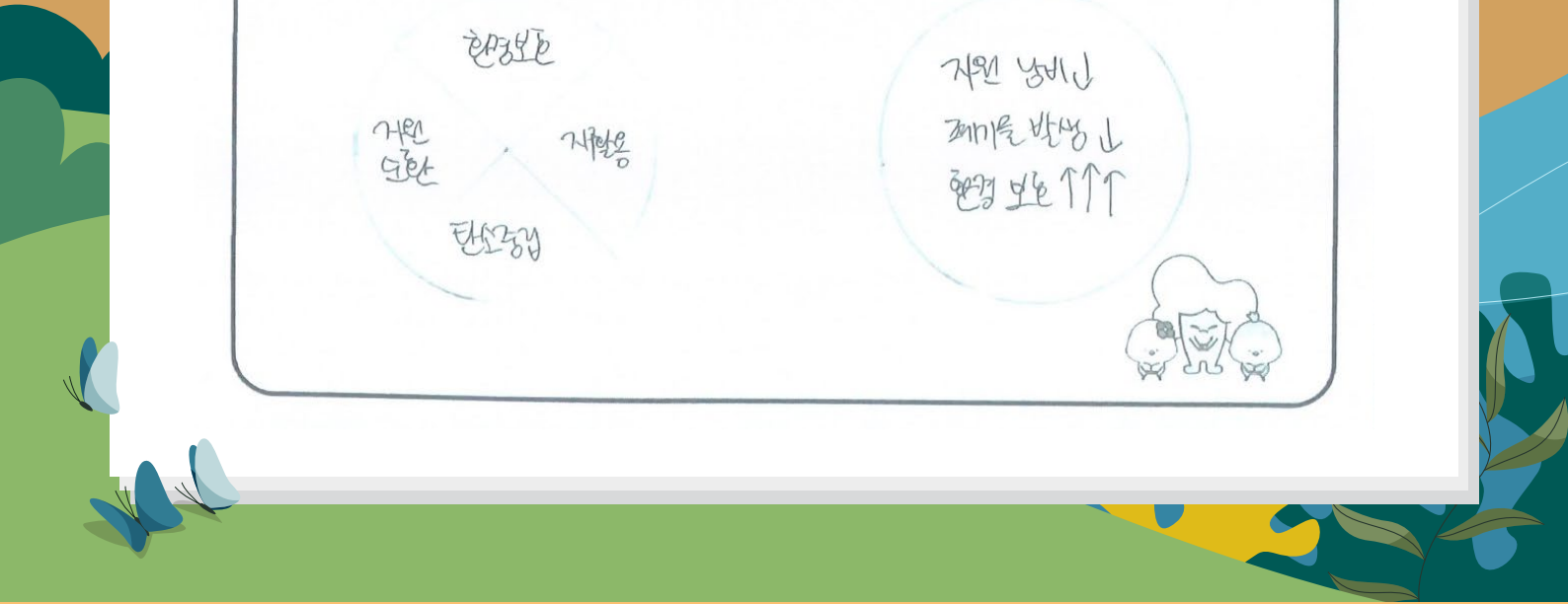
가연
쓰레기

가연물

탄소감축

가연 쓰레기 ↓
폐기물 발생 ↓
환경 보호 ↑↑↑







서하나 고등학교 1학년

2025 년 7 월 7 일 월요일

날씨 뜨거워!!!

오늘은 한명 읽기 대회 출제어거에서도 건강하고 있는 '선생.은가인' 기사 읽고 쓰기'를 권해주셨었다.

어떤 기사를 읽어야 할지 고민하다가, 평소 구독해서 즐겨보는 '뉴스캐런'의 기사는 신선했었다. 평소에 그의 깔끔한 표현, 기사에 나온 개념들을 습득하는 것이 관중이었다. 나는 이번 기사를 통해 재능을 더욱 깊이있게 알아보아야겠다.

오늘날 우리는 기사 중 "기후위기가 중요한 '빛' 이제 맞은 디지털 전환하기" 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꼭 띄었다. 디지털을 무척 좋아하는 나로서 클릭할 수 밖에 없는 제목이었다.

무더위 기사의 이 기사는 바깥세, 커리, 카와인 등 아이스크림, 가리나 같은 디지털에서 주요 향료 각동하는 것들이 많음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었다. 일일이 파고거린 바깥세가 가리에서 생산되기 위해서는 환경을 통한 수를 개발이 필요인데, 저 환경 기원의 상충관계 파나 관중이 생각하기 힘든 기사가 포함되어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중의 개개인이 숙제하고, 원하는 바깥세의 양이 크어지니, 더 많은 사람이 커서인 환경을 생각할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사를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예 한리 디지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연환경이 서늘보다 높아지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로부터 온 것들은 사라져도 온다. 예, 사물일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것들 중엔 우리 인간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디지털 플리야 안 하고 말라' 라고 생각했다면, 인간이다. 바깥세를 위해서가 아닌, 주변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 인류를 위해서라도 환경 파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것이 기사를 읽고난 후의 나의 압강이다.



2025 년 7 월 9 일 수요일

날씨 무더기 35도

무엇든 다러럴 탄소배출 감축을 해볼 것이다.

정말 시간에 빗어터티에 대해 배운 후 중태에 더 찾아보는 과정에서 다이어트센터에서 소비하는 전력이 얼마까지 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환경 보호 활동 중 하나로 '비인쇄'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내가 가장 신중하게 '저장공간 바꾸기'이다. 여러가지 있는 사진, 사용하지 않는 예전 활동 자료, 다른 받아왔음 음원 등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데이터를 삭제하였다. 특히 동영상, 유튜브에서 얻어온 저장해놓은 동영상도 바꾸는 용량을 차감하고 있었고, 이 데이터를 유가족에게 다이어트센터가 계속 들어가고 있었다... 너무 많은 전력이 낭비되고 있었다.

특히 수면시 유튜버를 볼 때는 화로 해설과 아닌, 인형이 한 단계 낮은 버전으로 시청하여 시청하였다.

두번째로 한 활동은 '비인쇄'이다. 의미없는 인증번호 인쇄, 광고형 비인쇄 등 이미 읽은 비인쇄와 읽지도 않은채 무지근고 있던 비인쇄를 모두 삭제하였다. 삭제하고보니 쿼리등에 의한 비인쇄는 200개 이상이었으며, 쿼리등 또한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사소한 행동으로도 전기가 절약된대시... 정말 놀라웠다! 이메일도 하인 방식에 대해 쿼리하지 않기, 노트북 하인 절약모드 사용하기 등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였다.

살충제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생가에서도 마찬가지라서 놀라웠다. 앞으로는 세밀한 환경에 대해 더 많이 찾아볼 것이다.





장려상

서하나 고등학교 1학년

2025 년 6 월 14 일 일요일

날씨 비 + DPM = 한양말 도둑!

사실 이번 디어한 편스토랑 주이기 활동 중 낯선 꿈이 있다.
 매일 주기기 활동 중 한양말 단제에서 보낸 메일이 꽤 많았다는 것이다.
 나는 여러 한양말제이 메일 공개수신에 동의하며 소식을 받고 있다.
 메일 가란에 '이 메일을 읽은 즉 삭제해주세요. 한양말 도둑이 됩니까'
 라는 글은 유독 눈에 띄는 편지도 있었다.

그래서, 내가 신청했던 건 아무 주지 없이 한양말제이로
 3일에 단제받은 메일 보내는 한 한양말 단제였다.

내용으로 영종유미종이 꺼낸 소재와 함께 추천해달라는 요청,
 혹은 편지를 훔쳐가기 위한 한양말 캐치인 행사의 홍보였다.

내용 자체는 좋은 것 같지만, 이로 인해 보편적 한양말 강조될 판정받았다
 아들의 존재까지 방송하는 메일 양이 꽤 많을 것이기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사생활도 느끼는 아들의 행락기, 나는 그들에게 메일을 보내보았다.

▲ 보낸 사람 : 서하나 <hanana0121@naver.com>
 받은 사람 : △△△ 캐치이너

1 안녕하세요, △△△를 응원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디움이 아니라, 케사의 지속적인 메일 전송에 대해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는 한양말 위해 행동하는 집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 의미가 짙어진 한양말 이런 행동을 아끼는 것도 같 아쉽기 생각합니다.

캐치이너로 위해 메일을 보내야 하는 상황 같지만,

한양말의 자의 사정도 조금 더 고려해주었으면 합니다.

메일 상단 혹은 하단에 '자신을 위해 메일을 읽은 즉 삭제해주세요'와 같은
 문구를 삽입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5 년 11 월 16 일 수요일

날씨 가을과 비는 같은 것.

요즘 날씨가 정말 너무하다.

어름 아깝게 더운 건 알았지만, 기온이 끝도없이 들쭉날쭉하다.

더위 좀 가시내달의 가을을 맞이대셨으면 이쁘네 비가 많이 들어내었다.

한번 비가 내리면 바람은 그날을 몰랐고, 맑은 기분으로 내었다.

비나 내면 꼭 날이 개면, 비 때문에 습하고 햇빛 때문에 뜨겁고

더욱 안좋은 날씨가 만들어졌다.

이런 날씨는 언제 날씨가 아니었다. 썩어 변태가 늘어나더니,

아제는 매년 반생태는 '가축'이 되어버렸다.

환경호의 여름은 덥고 습하고 강파가 끝났을 끝까지 맑은게 당연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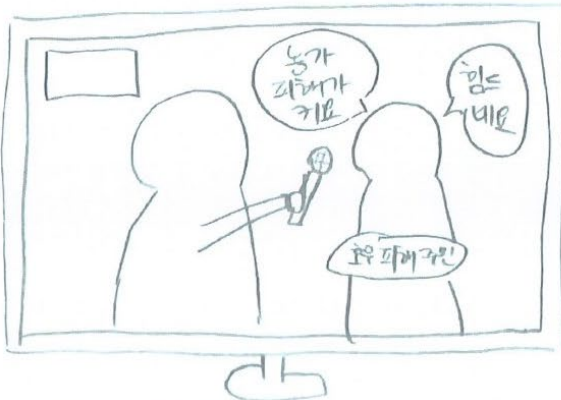
나는 어떻게 날씨가 이해하는 것이 대번 몰랐는데,

말만 이것 또한 '지구온난화'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다.

화석연료 폭우가 내렸던 것도, 폭우에 목숨을 잃는 사람이 많은 것도 모두 지구온난화 때문인 것인 일이었다.

TV 속 특우-폭우 3개 현상을 보니 지구온난화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은 것이 더욱 느껴졌다.

환경공과사가 되어 저를 지켜가겠다는 비록은 한번 더 굳게 다짐하였다.





2025년 7월 2일 목요일

날씨 더운데 더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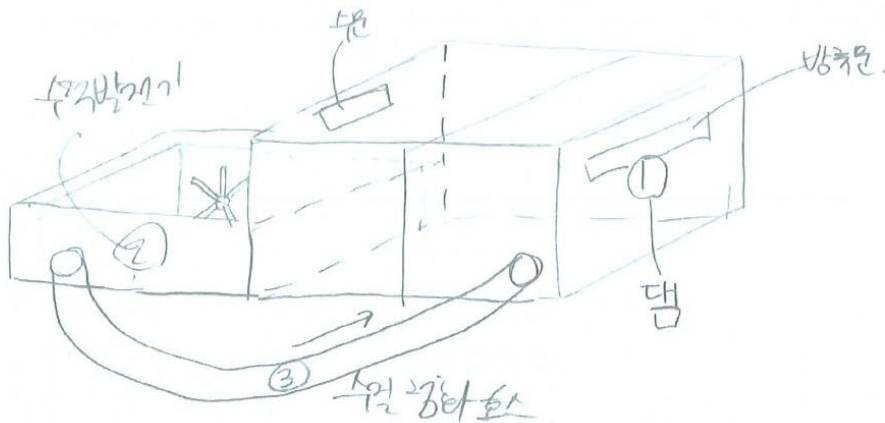
우리는 '아이디어 구상'을 해보았다.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운영된 나뭇잎을 정태시켜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탄광 정화 기술

그 중에서도 수질 정화 기술에 대해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았다.

<수질원 복합사업>



수질정화기와 댐, 수질 정화호의 기능을 합친 수질원 복합사업을 생각해 보았다.
각각 만들거면 펌프와 여과 장치의 환경 파괴가 크고, 비용이 더 든다.
때문에 수질정화기 위주 물이 떨어지면,

남게 돌아가는 힘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활판기 하판기 방인 물은 호수를 통해 연결

해서 돌아가는 독립형 수질원 복합사업이다.

이제 호수에는 수질 여과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댐의 뒷부분으로 가고, 물이 떨어질 때 방수된다.





서하나 고등학교 1학년

2025 년 7월 23 일 수요일

날씨 맑음 기온 24도

오늘은 불면증으로 밤에 잘 수 없는 현상도 보려고 해보았다.

1. 연기

연기를 만났다고 했다. 같이서 약속 장소에서 같이서 2분 기다리지만, 현장을 위해 기다린다. 공기도 맑아서 같은 연기를 더 상쾌하게 했다.

2. 육류 X

오늘은 마시탕을 마셨는데, 조금 죽이 가진 양고기, 소고기, 소시지, 카레를 마시탕을 넣지 않았다. 소나 양, 닭이 배추는 마시탕이라 서로 개배로 인한 거품과도 문제가 생겼다고 피곤하다.

3. 탈취제 사용

카레에서 음식물 사 잔의 냄새를, 케이크나 비 탈취제에 맡겼다. 특히선박 사용도 죽이고, 향신료 넣고, 린유아소네~

4. 기원 기원 기원

머리를 굉장히 바늘 쓰기 위한 주사기가 떨어지니 사기했다. 원래대로 살기도 했지만, 기원 기원을 캐시 엔트로 했다.

5. 손수건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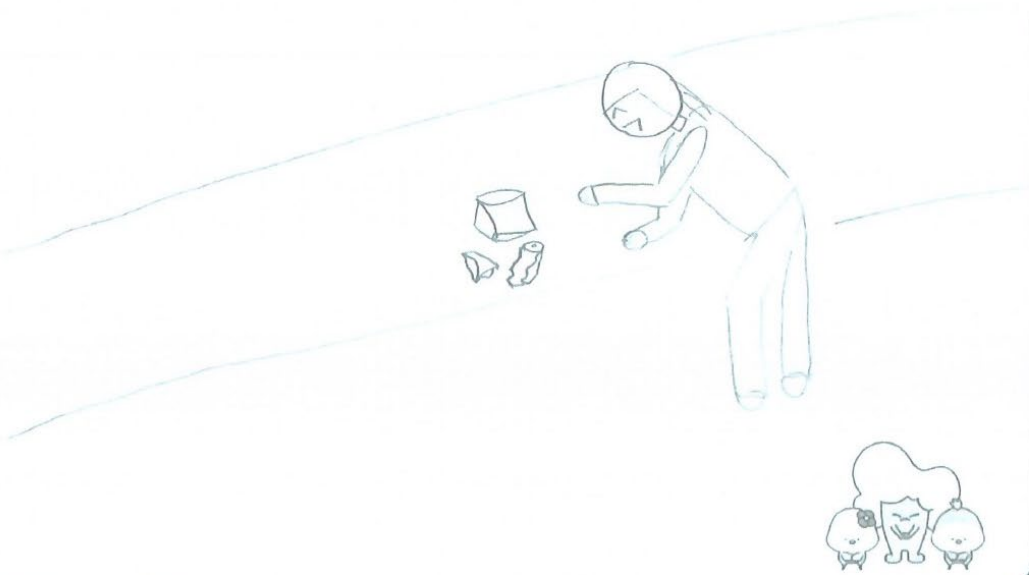
가장 안락한다는 여름강기를 집에서 귀뚜라미를 본다. 가짜도 아니지만 길이 튀김과와 후미나 클터기를 사용했는데, 같이 안은 만났을 거네 사용해서 편했다.



2025 년 7 월 20 일 월요일

날씨 덥고!!!

나는 언제 산책하는 것 좋아한다.
 잔디 파다는 많지만, 공기 좋은 공원에서 개간씩 걷고 싶다.
 수영장, 평강 스타벅스도 근대보인 바깥에서, 산에서
 사람이 많은 쓰레기통 볼 수 있었다.
 국현이 쓰레기통이 있는지 봐서 바깥에서,
 대부분의 쓰레기는 그냥 두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누가 치우려고 생각했다.
 그제야 가끔 환경보호인 나는 모으려서 한다.
 내가 가져간 봉투에 쓰레기를 하나들 담았다.
 내가 자주 걷는 길이 깨끗하게 좋아한다.
 다음에는 환경보호와 함께를 준비해서
 더 환경보호로 많은 쓰레기를 줘야겠다.
 아진 바깥이 아닌, 환경보호로써의 약속이다.





서하나 고등학교 1학년

2015 년 7 월 30 일 수요일

날씨 맑고 더워요

오늘 내가 계획한 활동의 마지막 날! 이게 절반이다!
 첫날을 배운 것을 배수 할 때마다 활동을 진행했다.
 활동은 원.수이 했지만, 이번 활동을 할때 항상 고민도 했고,
 환경개선이라는 본질을 생각해 위해 생활 속에서도
 프로그램보다 의욕으로 환경보호를 실천하며 노력했다.

나는 고. 환경공학과로 진학하러 가는 물건을 가져온 있다.
 그래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여러가지 과학기술이 많이 활용되었다.
 이번 환경인기상을 작성하며 깨달은 것들은
 기술이러 해온 것들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다.

실용적이고 당장, 가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같이할 수 있는 일이다. 같이해야만하는 일이다.

원인론 사본은 해서는 자보다 사본이 만들어지기 앞서
 노력하는 즉 퀘스트 세입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머니 되고 대학에 갈다는 것이 부끄러워만 했지만,
 환경 인기상을 쓰어 어느 정도 방향은 알수 있을 것만 같았다.

이 무한한 세상, 환경공학과가 되어 다시 돌아올거다! 반다!

